

청소년 독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새마을문고중앙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등서 세미나 개최

청소년들의 독서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지난 달 24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씨(미림여고 교사)는 독서전문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단답식 고교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지난 달 2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대현씨(아동문학가, 여의도고 교사)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독서행태를 인정해야 올바른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가 밝히고 있는 독서교육의 실상을 살펴본다.

단답식 시험이 청소년 독서 저해

김대호(「현행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따른 독서지도의 문제점과 대책」)——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 측정한다는 취지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라는 지적 양의 측정에서 벗어나 “무엇을 얼마나 타당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낼 수 있느냐?”를 평가의 중심틀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범교과적 영역내의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교과별 독서지도가 필요하고, 터득한 영역별 지식을 총체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독서교육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독서교육은 시험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해서 시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독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학입시를 전해 무시할 수는 없다. 양면적 효과를 거두면서, 근간을 이해하는 원론적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시간이 따로 마련되

어야 학습자로 하여금 읽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지도할 전문교사도 필요하다.

독서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문제를 인식하고 책을 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간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독서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고교교육은 문제훈련식 학습이 되고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교과목 중 문학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나 지정된 수업의 차시를 고려할 때 독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시간에 독서감상문 발표나 토론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문학작품 이외의 글은 대할 기회가 없어 비판적, 분석적 글읽기 등 독서의 목적을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둘째, 내신성적 반영을 위한 학교내 시험이 절대답안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내신등급 산출의 편의를 위한 행정업무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식이나 내용을 파악해 내는 사고과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다양한 문현을 접하는 기회가 적다. 다양한 읽기 자료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학습자들 모두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구비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독서에 대한 열의와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독서생활의 일반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



사진은 지난 9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새마을문고중앙회의 독서대토론회.

해서 학생 개인별 독서활동기록부를 비치하고 독서활동 상황을 기록하는 방법도 썩 좋을 듯하다. 학생들이 실행한 자율독서나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결과를 교사들이 수시로 학습지와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 나타난 실직을 1학년때부터 기록해 주고 적당한 평가와 보상을 해준다면 비록 타의적이기는 하지만 독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충수업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보충수업 시간에 교사는 자기 전공분야에 관한 서적이나 문현 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고 재편집하여 학생들에게 읽히거나, 조를 편성하여 토론을 하게 하는 등 협력식 수업을 전개할 때 교육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두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한 학기동안 실시한 결과, 학습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적극성을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 새로운 독서형태 인정해야

조대현(「청소년의 독서행태 변화와 바람직한 대처방안」)——요즘 청소년의 독서행태 중 우선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이들이 시간 공간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있으며, 濫讀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독서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다거나 특정한 장소를 찾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한자리에 앉아서 장시간 독서에 몰입하지도 않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지도 않는다.

기성세대라면 당연히 청소년들의 독서가 진정한 독서인지 의문을 갖겠지만, 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터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정신기능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
한스 요나스 지음 / 이진우 옮김 / 384면 / 9,000원

한스 요나스가 지구의 종말이라는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 상황에 대해 고찰한 환경 철학서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기존의 전통윤리학으로는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책임의 명법”을 제시한다.

논리적 사고
•••••••••••••
R.L. 퍼틸 지음 / 한상기 옮김 / 240면 / 5,500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필요한 기초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일상의 상황에서 좀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 안내서이다. 또한 적절한 사례도 제시되어 있어 입문서로 적절하다.

새양주 나라의 올림픽
•••••••••••••
M. 아놀렛띠 지음 / 김홍래 옮김 / 96면 / 4,000원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24권으로 다섯 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무심히 스쳐버리기 쉬운 자연현상과 새양주, 매미, 앙무새 등을 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그림은 색감과 관찰력을 길러줄 것이다.

콰인의 자연주의 인식론-
•••••••••••••
김영남 지음 / 212면 / 5,500원

철학박사학위논문 제 4권째 책으로, 지식의 문제에 대한 콰인의 입장을 해명함에 있어 필자는 〈자연화된 인식론〉과 규범을 허용하는 “자연주의 인식론”을 구별하고 후자가 진정한 콰인의 주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학과 작가정신의 흥겨운 되새김

박경리씨 자택서 「토지」 완간 기념잔치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아아 독립 만
세! 사람들아! 만세
다!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
쩍 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 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장장 26년간 한 인간
의 혼과 생애를 맞바꿔
완성된 박경리씨의 대
하소설 「토지」의 마지

막 대목이다. 10월 8일 강원도 원주시 단
구동 박씨 자택 마당에서 벌어진 완간기념잔
치는, ‘두루마기도 벗어던지고 동저고리 바
람으로’ 만세를 부르던 이들이 소설 밖으로
뛰쳐나와 해방의 기쁨을 재현한 자리였다.
소설가 박완서씨에 의하면 “이날 입때까지
살면서 이런 행사는 처음”이었고, 소설가 최
일남씨에 따르자면 “희안한 잔치”였다. 마
시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에서도 참석자들은
흔쾌히 「토지」 속 ‘등장인물’임을 자처했다.

소설의 배경이 된 경남 하동 평사리에서는
면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주민이 참석, 화환
을 봉정했다. 한 문학평론가는 “50대의 면
장님이 박선생님 앞에 서니까 귀여운 화동으
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지」의 문
학적 의의에 대한 기념강연을 맡은 문학평론
가 김병익씨는, 그가 「동아일보」 문학담당
기자로 일하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土

地」를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이라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만용이 아닌 용기였다는 생각이 듈다”고.

이 행사에는 준비위원회장을 맡은 김형국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 김정자·장명수·권영
빈·김성우씨 등의 언론인, 이문구·김성동
·조정래·윤홍길씨 등 작가, 김치수·정현
기·장경렬씨 등 문학평론가, 김찬국·이인
호씨 등 학계인사, 정현종씨 등 각계 인사들
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박경리씨의 ‘팬’이
라고 자기를 소개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
장, 김내종 원주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문학과 작가정신의 위엄을 ‘흥겹게’ 되새
긴 이 잔치상을 받은 작가 박경리씨는 “글
쓰는 일은 그냥 살아가는 일, 삶 자체였을
뿐이었다”면서 “이같은 진심어린 환대에 대
해 나중에 벌받을 것만 같다”는 소감을 피력
했다.

즉 요즘 청소년들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을 동시에 가동하여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불필요한 감각기관은 간단히 차단해 버리고 한 기관에만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와 함께 잡다한 정보를 머리 속에서 종합하고, 이를 계통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입체적 통합기능 또한 매우 높게 발달되어 있다.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독서물을 선택하는 motivo에 지극히 편의주의적이고, 내용 선호에 있어서는 고전보다 신서 지향적이다. 문장표현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도서애착심을 보이지 않는다. 어찌나 눈에 띄니까 읽고, 남들이 읽어보고 좋다니까 따라서 읽는다. 내용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나온 지 오래되어 빛이 바랬거나 그 내용이 현대적인 감각에 부합되지 않는 책은 읽으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무리 옛날 책이라도 표지와 장정, 조판을 새롭게 하여 발간하면 역시 신서와 같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세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독서행위에 대한 이들의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독서—시험에 도움—출세와 치부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독서가 시험에 도움이 된다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독서관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청소년들에게 교양과 인격 완성으로서의 독서를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

선 기성세대가 독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터득한 統御力, 순발력, 정신집중력은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독서를 권장해야 한다.

독서지도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도서관과 서고의 책을 풀어 청소년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학급문고나 마을문고)에 분산 비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신간도서를 보충해 줌으로써 편의주의적이고 신서 지향적인 그들의 독서성향에 적절히 부응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독서시간을 운영하는 폐습을 버리고, 학생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실질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10분 독서 생활화’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각종 독서 결과 평가도 물량적 이해위주의 측정방법을 벗어나, 학생이 독서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자기 생각과 논리를 이끌어 냈느냐 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독서지도 방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협조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짧고 가벼운 편집으로 문학 이외에 다양으로 세분화된 청소년도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도서는 특히 장서용과 문고본으로 구별되어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문고본은 소모품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빌려볼 수 있도록 해야 도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정리·이성수 기자

최신 정보에 의한 가장 좋은 컴퓨터서적!!

첨단 컴퓨터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73-12 TEL: 745-0311~3 FAX: 741-3231

■ 최신컴퓨터용어대사전

최신용어를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으며, 한글 색인을 수록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편집하였다. 컴퓨터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15,000원

■ 디자인 MS-DOS 6

하드디스크를 암축하여 2배로 쓸 수 있는 Double space, 메모리 최적화 기능의 Mem Maker DOS, 바이러스 검색과 제거등 다양한 기능이 수록되었다. IDA 그룹 저/8,000원

■ DOS! 너 잘 만났다

컴퓨터의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초를 튼튼히 해주고 그림과 함께 설명하여 지루하지 않고 쭉쭉 머리에 들어온다. 조현목·임용훈 저/6,500원

■ 자세하게 배우는 dBASE III PLUS

dBASE 명령어의 사용법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PROGRAM작업에 적용할 수 있게 체계적인 순서를 밟아놓았다. 손회정 저/7,000원

■ dBASE 3+와 CLIPPER 실습

dBASE 페키지와 클리퍼의 명령어, 다양한 함수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박양재 외 3인 저/15,000원

■ 강의식으로 배우는 Lotus 1-2-3 R. 3.4

아이콘 페리티 등을 중심으로 실습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걸었다. 서영준 저/8,000원

■ FoxPro 2.5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명령어와 함수, SQL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김윤희 외 4인 저/11,000원

■ 윈도우즈용 Adobe Photoshop V.2.5

2차원 통합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광고디자인, 전자출판, 애니메이션, 순수미술 등에서 완벽한 제작을 해냅니다. 안중천 저/12,000원

■ 한글 원도우 3.1

한글 원도우 3.1을 그림을 걸들여 설명하여 초보자도 자유롭게 Word Processor, Graphic Editor, CAD프로그램 등을 쓸 수 있게 하였다. 이희조, 노종수 저/12,000원

■ MS-ACCESS(윈도우즈용 데이터베이스의 질점 고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지원, 테이블, 품, 쿼리, 리포트, 매크로, 모듈 등을 포함하는 각계 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록하였다. 지구동호회 저/11,000원

■ 배치파일

배치파일로 프로그래머들이 만들 수 있었던 여러가지의 간단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혁수 외 1인 저/8,000원

■ AutoCAD R.11

AutoCAD 설치하기 및 들어가기에서 AutoCAD의 SETUP에 관한 명령어, 기타 UTILITIY, 3차원까지 AutoCAD의 모든 것을 실었다. 주봉출·김정희 저/10,000원

■ MAC, IBM 우리는 친구

맥인토시와 IBM-PC의 자료교환을 중심으로 하여, 맥의 기본 지식과 PC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맥인토시를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김건식 저/7,000원

■ 컴퓨터 바이러스(예방·치료)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과 퇴치 방법, 백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여, 예방과 치료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석철 저/12,000원

■ 내가 만드는 컴퓨터

컴퓨터의 제작 및 각 어려운 대해 사용자 본인이 용광조치 할 수 있게 했으며,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친밀도를 높게 하였다. 이원재 저/7,000원

■ 신세대 트리오 DOS 6.0+한글 2.1+

한글 원도우 3.1 한권으로 3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 다기능 신세대용 책이다. 류재구 저/12,000원

■ 한글워드 5.0

고품위의 문서 작성할 수 있는 워드 아트 기능이 있으며, 한글 워드로 100% 편집을 실현하는 워드프로세서의 진가를 보여 준다. 일용기 저/8,000원

■ 한글 2.5

편집중심, 예문풀부, 화면 편집 100%, 지면배치, 연관된 기능, 편집체계, HP4 600dpi, 책자편집의 실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정일우 저/8,000원

■ PC 사용자 가이드

컴퓨터 바이러스, dBASE III PLUS, LOTUS 1-2-3, 포트란 등에 관한 기본 상식과 클리퍼 컴파일러 사용방법, Turbo-C Ver 2.0, 원도우즈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형오 외 3인 저/10,000원

■ HYPERTEXT COBOL-85

예제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장소 배치도(Memory Map)와 순서도(Flow Chart), 코딩(Coding)을 설명하였고 실기 시험 문제도 수록하였다. 허병연·허희연 저/12,000원